

돌멩이 박물관

서로 다른 돌을 살펴보고
내가 찾은 닮은 점으로 모아요

돌의 색·크기·표면을 살피고,
이름과 관찰 그림을 붙여 나만의 박물관을 열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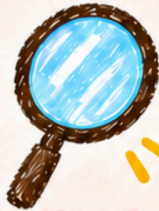


내 기준으로 모으고, 서로의 발견을 소개해요.

준비물과 사전 준비



세척한 큰 돌



확대경



관찰 카드



색연필



전시 바탕판



활동 전에



1

돌을 씻고 말려요.

날카로운 모서리와 떨어지는 조각은 어른이 미리 살펴요.



2

흰색·검은색, 무늬 있는 돌,
납작하거나 길쭉한 돌을 섞어요.

3

돌은 겹치지 않게 놓고,
카드와 도구는 손이 닿게 뒹요.

입에 넣지 않도록 어른이 함께 살피고,
한 손으로 무리 없이 다룰 수 있는 돌을 골라요.



관찰하고, 닳은 점으로 모아요

1

흥미로운 돌을 골라요

마음에 드는 돌을 고르고,
고른 까닭을 말하거나 가리켜요.

“어떤 점이 눈에 들어왔어?”라고 묻고 기다려 주세요.



2

가까이 보고 기록해요

확대경으로 색·무늬·표면을 보고 천천히 만져요.
특징을 카드에 그리고, 내가 지은 이름을 붙여요.

글이 어려우면 아이의 말을 그대로 적어 주세요.



3

내 기준으로 전시해요

두 돌을 나란히 놓고 닳은 점을 찾아요.
내 기준으로 모으고 카드를 곁에 놓아요.

“무엇이 닳았을까?” 기준은 바뀌도 좋아요.



혼자 또는 함께

혼자라면 내 기준으로 여러 돌을 모아요.

함께라면 각자의 기준을 소개하고 전시 구역을 나눠요.

안내자와 관람객을 바꿔, 다른 기준으로도 모아 봐요.



함께 돌아보고 기록해요

돌의 이름과 함께 모은 까닭을 소개해요.
다른 사람이 발견한 특징도 들어봐요.

“네 박물관에서는
어떤 돌끼리 이웃이니?”

“가까이 보니
새로 보인 것은 뭐야?”

한 장면만 남겨요

돌과 카드가 함께 보이게 사진 한 장을 찍고,
아이가 말한 분류 기준을 짧게 적어요.

아이가 붙인 이름 / 함께 모은 까닭

안전과 정리

- 돌은 입에 넣거나 던지지 않아요.
- 바닥 가까이에서 천천히 놓아요.
- 날카롭거나 부서지는 돌은 어른에게 알려요.
- 돌과 도구를 정리한 뒤 손을 씻어요.